

# 축전

## 대한건축사협회 제57회 정기총회 의무가입 법 개정 후 첫 대면총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KIRA), The 57th Regular Meeting  
The first face-to-face meeting after the Revision  
of ARCHITECTS ACT: Mandatory registration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월 23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해 8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면총회를 가졌다. 협회는 2월 23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차 협회 발전 기본계획 2023년도 실천계획안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임원 선출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협회는 의무가입 법 개정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됐고, 회원의 이익과 전문가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잘못된 관행·관습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건축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간 설계 대가의 법제화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우수한 건축물 조성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관희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제57회 대한건축사협회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님과 협회 회원 여러분,

김철민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조웅천 의원님 그리고 관련 단체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축은 한 국가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대한건축사협회는 '국가공인건축가'인 건축사 여러분과 함께 공간의 가치를 더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건축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과 홍보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건축의 역사를 씌나가는 건축전문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1.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개회사를 밝히고 있다.

2. 건축사현장을 낭독하고 있는 이근희 이사.

3. 이날 총회 사회를 맡은 정명철 총무이사.

4. 심상정 국회의원이 대한건축사협회 57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기총회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왔다.

6. 김철민 국회의원은 이날 지방 일정으로 총회장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식전 건축 사회관을 방문해 석정훈 회장과 담소를 나누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7. 조웅천 국회의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8.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총회 현장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9. 천의영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한국건축가협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